

# 로저 그린 박사, 미국 기독교, 세션 2~ 3, 신정통주의와 사회적 위기, 3 부

© 2024 Roger Gree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미국의 기독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3, 신정통주의와 사회적 위기, 3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D, 강의 번호 16, 신정통주의와 사회적 위기, 그리고  
우리는 D, 그리스도와 문화에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상기시켜드리죠. 신정통주의, 미국으로  
건너온 이 유럽 운동은 니버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옹호했지만,  
신정통주의는 미국 생활의 넓은 중산층을 바라보고 도전받지 않는다고  
느낀 운동이었습니다. 좌파에는 일종의 파산한 고전적 개신교 자유주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H. Richard Niebuhr의 *The Kingdom of God in America*에서  
인용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일종의 미국  
근본주의였습니다. 인식된 바는, 그 인식이 옳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지성주의적이고 감정적인 운동으로 인식되었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개신교도의 넓은 중간 계층은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신정통주의는 그들에게 어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강력하고 성경에 기반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종교 개혁의 눈으로,  
주로 칼빈의 눈으로 성경을 보았지만, 또한 매우 지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철학, 예술, 문화, 현대 세계, 그리고 근대성이 가져온 모든 문제,  
정치, 사회 구성 등을 진정으로 다룰 수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매우, 매우 지적인 운동이었지만 강력한 지적인 운동이었고,  
그래서 그것은 현장에 나타나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특히 Niebuhr를 통해

미국 기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네,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는 『그리스도와 문화』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다른 과정에서 그리스도와 문화의 일부를 읽었거나, 몇몇은 다른 과정에서 그리스도와 문화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서론을 했는데, 책과 책의 맥락 등에 대한 상기시켜 드리고, H. 리처드 니버가 그리스도, 성육신한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육신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는 이 세상에 왕국의 실체를 가져온 주님으로서의 육신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역사의 주님이시므로, 이 육신의 하나님에는 많은 차원이 있습니다.

성경의 서사를 아주 깊이 파헤쳐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그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낼 수 있고, 그런 다음 문화, 그가 문화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현실을 형성하기 위해 자연 세계에 부여하는 것이며, 그것은 정치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고, 건축일 수도 있으며, 문화를 형성하고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윤리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언급한 것 중 하나는, 제 생각에, 얼마 전 결론에서 바로 언어였습니다.

언어는 문화입니다. 제 교수님 중 한 분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언어를 얻으면 그들의 문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 문화적 현실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문화를 형성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우리는 그가 다섯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그 중 세 가지를 취할 것입니다. 한 쪽에는 하나, 반대쪽에는 하나, 중간에는 세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세 가지를 가져와 하나로 옮기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우리가 그만둔 지점이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행을 계속해 봅시다. 개요에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의 대조,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의 대조입니다. 좋아요, 이제,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의 대조라는 입장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글썄요,

개인의 삶, 단체의 삶, 그리고 지역 사회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권위를 확증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확언하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다른 권위는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는 우리의 충성심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이 입장을 고수하고 그리스도와 문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문화가 우리의 충성심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충성심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이 그리스도가 형성하는 기독교는 문화적 기독교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형성하는 기독교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왕국입니다.

새로운 세상이며, 우리의 유일한 충성심은 그 새로운 질서, 그 새로운 왕국,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 문화에 대한 충성심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의 대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열고, 그들이 성경을 열면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으라는 급진적인 부름입니다.

그들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것이 세상을 떠나고, 타락한 세상을 떠나고, 그분을 따르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라는 급진적인 부르심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서 급진적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며, 사물의 근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며, 새로운 왕국의 일부가 되지 말라는 부르심은 정말 급진적인 부르심이며, 모든 참된 제자는 그 부르심을 따를 것입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그 부름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때때로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에 대립이 있고, 때때로, 항상은 아니지만, 때때로 이것에 매우 역동적인 종류의 종말론이 섞여 있고, 때때로 그 혼합 속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가 사는 그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문화적 현실이

어차피 없어질 것이고, 남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리스도와 문화권 사람들 사이에 매우 강한 종말론적 긴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 충성이 문화 때문이 아니라 문화가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문화는 지나가고 있으며, 모든 문화는 궁극적으로 이 종말론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반대자들이 종말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 중 일부는 신약에서 진실이었던 것을 대표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신약의 신자들은 예수의 임박한 재림을 정말로 믿었고 그런 종류의 급진적인 방식으로 삶을 영위했습니다.

글쎄요, 만약 우리가 그런 종류의 종말론적 현실에 살고 있다면, 우리도 원시 교회가 삶을 영위했던 방식대로, 어떤 문화에도 충성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만 충성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 중 일부에게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사악하고 정말 일종의 변태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야 할 것들이 있고, 더 넓은 문화권에서 당신이 아무 상관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 몇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그런 현실은, 예를 들어, 정치적 삶, 문화의 정치적, 사회적 삶은 피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정치적, 사회적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좀 외면당하고 있어요. 그게 한 가지 예죠. 군 생활은 외면당하고요.

많은, 때때로,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화주의자이며, 그들은 어떤 군대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적 기관이며, 사악한 문화에 의해 세워진 타락하고 사악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군대 생활을 피할 것입니다.

철학과 관련된 모든 것은 끝난 사고의 인간적 구성으로 여겨진다. 나는 그것이 기피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주된 충성은 성경과 예수의 가르침에 있지 아리스토텔레스나 아퀴나스 같은 것에 있지 않다.

종종 예술과 관련된 모든 것은 예술계가 무엇의 표현이기 때문에 외면당합니다. 타락한 문화의 표현이죠. 그래서 예술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일종의 아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에는 반대가 있습니다. 이제 니버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가 준 것과 그가 언급한 것 중 하나는 우리와 우리 과정에 정말 중요한 예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가 분명히 많이 언급하는 한 가지 예는 수도원주의입니다. 수도원주의는 역사적으로 때때로 그리스도와 문화 운동에 반대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수도원주의는 개별 수도사들로 시작되었고, 2세기와 3세기에 공동체 운동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한 한 문화에 대해 무사했고, 완전한 충성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었습니다. 물론 초기 수도사들은 동굴에서 혼자 살았고, 동굴에 앉아서 평생을 숙고했습니다. 그들은 문화와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음식을 보관하면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가끔씩 시메온 스틸리테스를 만나게 됩니다. 수업에서 시메온 스틸리테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셨나요? 시메온 스틸리테스는 초기 이집트 수도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나 시리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기둥이 하나 있었고, 그는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는 남은 평생 그 기둥 꼭대기에서 살았고, 그가 살았던 작은 장소였어요. 모든 양식과 모든 것은 제자들이 했어요.

하지만 그는 명상하는 수도사였고,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많은 개별 수도사들과 초기 공동체들은 그리스도와 문화에 반대했습니다. 오래전 수업에서 저는 트라피스트 수도원 방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켄터키 주 바드스타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곳이 로마 가톨릭교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트라피스트 수도원 방문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문화 경험 사이의 대조였습니다. 트라피스트 수도사들은 가난을 맹세했고, 수도원의 수도원장은 그들 중 일부에게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허가를 내려 그들 중 일부가 우리와 교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난을 맹세했고, 각자는 침대 하나, 의자 하나, 세상의 모든 소지품을 보관할 작은 선반 하나가 있는 단 하나의 셀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고, 그들은 망토를 걸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세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난에 맹세했습니다. 순결에 맹세했고, 그것은 명상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서약을 한 후 , 그들은 평생 여자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자매를 의미했습니다. 가난, 순결, 순종, 그들은 수도원의 대수도원장에게 순종을 맹세했고, 절대적인 순종을 맹세했고, 그들은 침묵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상적인 수도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서약을 한 후, 그들은 평생 침묵의 서약을 합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는 침묵이 요구되지 않았지만 수도회에 중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네 번째 서원이라고 부를지 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용한 삶을 살았고, 하루에 일곱 번이나 교대로 근무하면서 성대를 잃지 않기 위해 위대한 그레고리오 성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 외에는 그들의 삶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그들은 하루 종일 신을 묵상하며, 그들의 일을 하러 가는 동안 등등. 그런데, 우리는 그 경험에서, 우리가 갈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우리는 몇 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매우, 그들이 지은 것은 매우 고딕 중세 수도원처럼 보였습니다. 제 말은, 마치 중세 세계의 프랑스나 독일로 다시 옮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꽤 많은 종류 의 늙고 뼈뺀 남자들을 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몇몇은 있었지만, 그들 중 많은 수가 마지막 서약을 한 젊은 남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수가 남자였고, 겨우 21, 22, 23 세였어요. 그들은 이미 마지막 서약을 했어요.

그들은 3년의 수련 기간을 가졌고, 그들은 평생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은 평생 그 순서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을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의 대립의 예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예입니다. 이제 그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그는 언급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미국 근본주의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근본주의는, 우리가 근본주의의 역사를 공부할 때 알게 되겠지만, 미국 근본주의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와 문화 사고방식 사이에 대립이 있는데, 문화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최소한 가능한 한 적게 상관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교회 생활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 공동체의 공동체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미국 근본주의 운동은 그 중 일부가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의 반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미국 근본주의에서 자랐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꽤 많은 규칙과 규정, 여러분의 양육에 관한 많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타락한 문화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문화에 대한 충성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제, 그가 하는 것은, 제 말은,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의 대립에 대한 두 가지 예입니다.

좋아요. 그가 지금 이 각각에 대해 하는 일은 그것을 필요한 입장이지만 부적절한 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의 반대에 대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전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니버는 이것이 필요한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왜 이것이 필요한 입장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충성심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필요한 입장입니다.

인생에서 당신의 궁극적 충성심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당신의 절대적인 충성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문화에 대한 충성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그것은 주님이신 예수님과 그의 왕국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절대적인 충성심입니다. 그는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필요한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문화가 종종 예수의 가르침에 반하는 타협을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필요한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는 타협 중 일부는 왕국의 가치와 왕국의 삶에 너무나 어긋나는 꽤나 역겨운 타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삶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나 심지어 죽음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 있는 의미에서 일종의 역겨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타협에 굴복한다면 그들의 가치를 떨어뜨릴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그는 이것을 필요한 입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적절한, 부적절한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져야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부적절한 입장이에요. 알았어요.

이제, 왜 그것이 부적절한 입장일까요? 우리는 그냥 이 입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적절한데, 인간은 문화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살고 그 문화의 생물이라는 사실 그 자체로 문화적입니다

.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 아마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께서 모든 것, 모든 세계, 모든 문화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문화에 대해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 자체로 매우, 매우, 문화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문화를 만듭니다. . 문제는, 우리가 그 문화에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만든 문화를 보존하려고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문화적 존재입니다. 이제 잠깐 수도원주의를 살펴보죠. 우리가 초기 교회에서 본 수도원주의는 2세기와 3 세기 에 중세 세계에 도달했을 때 수도원주의와 중세 세계의 더 광범위한 문화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광범위한 문화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수도원 제도는 예술의 장소였습니다. 수도원 제도는 건축의 장소였습니다. 수도원 제도는 언어의 장소였습니다.

수도원 제도는 학습의 장소였습니다. 수도원 제도는 중세 세계에서 서양 문화를 지배한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멸시했을지도 모르는 문화가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러면 프란치스코회에서 “아니, 우리는 너무 멀리 갔어. 뒤로 물러나자”고 말하는 것처럼 그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는 확실히 그 자체의 문화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던 랍비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학기였고, 그는 지난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저녁을 먹을 기회가 있었고, 마브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시드 유대인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고, 미국 유대인으로서, 아마도 개혁된 전통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시드 유대인들을 매우 근본주의적이고, 옷차림과 공동체 생활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그는 하시드 유대인들을 다소 이상하게 봅니다. 극단적인 정통 유대인들은 미국 유대인으로서, 미국 개혁 유대인으로서 그에게 다소 이상한 집단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500년이나 600년 후에도 유대교가 살아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 덕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교와 유대교의 본질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미국 유대인, 개혁 유대인 등등, 그들은 매우 미국화되었고, 문화의 일부가 되었고, 등등.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불충분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좋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의 두 가지 대조입니다. 세 번째는 그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와 문화의 종합입니다, 3번. 개요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의 종합입니다.

좋아요, 그리스도와 문화의 이 종합에서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는 긴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는 전혀 긴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모두 똑같이 편안합니다.

그들은 이것에 전혀 긴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음과 사회법, 복음법과 사회법은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신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은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노력 사이에는 조화가 있습니다. 구원의 윤리와 진보의 윤리. 구원의 윤리와 진보의 윤리는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런 종류의 것들 사이에는 긴장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들 사이에 아무런 격차도 보지 못합니다. 이제, 그들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자유주의 개신교에서 이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이 관점의 지침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의 가르침은 그가 훌륭한 도덕 교사이고, 훌륭한 윤리적 인물이며, 본받을 만한 도덕적 인물이라는 이러한 자유화된 관점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문화 속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신과 함께 집에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서 그런 존재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좋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목표, 문화의 목표는 살롬입니다. 평화롭고 협력적인 인간 존재입니다. 그것이 문화의 목표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모든 문화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것은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관점으로 이 문화는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화를 구성할 수 있고, 우리 인간들은 이 살롬의 문화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윤리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를 건설하는 데 하나님의 언어의 왕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화와 종교가 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중 컷, 두 번째 그룹, 그리스도와 문화의 종합입니다. 이것은 다문화적 노력이며 다종교적 노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에 근거한 판단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 대한 판단도 없고, 아름다운 합성이 있고, 두 가지의 아름다운 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와 문화의 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좋아요, 이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예가 있고, 우리는 수업에서 두 가지 예를 모두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두 가지 예, 첫 번째는 신앙주의이고 신앙주의의 예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는 신앙주의에 대해 이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8세기의 신앙주의, 토마스 제퍼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상은 확실히 토마스 제퍼슨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전적 자유주의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부르는 것, 19세기, 20세기에서 21세기까지의 프로테스탄티즘, 고전적 자유주의 프로테스탄티즘이 될 것입니다.

수업 초반에 언급했듯이, 저는 뉴욕에 있을 때 학생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Judson Memorial Church로 데려갔었습니다. 그리고 Hunter, 그 카메라 옆을 지날 때 몸을 숙이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Judson Memorial Church로 데려갔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의 매우 흥미로운 예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일요일에 설교자가 월트 디즈니 종교에 대해 설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요일의 찬송가는 미키 마우스와 데이비 크로켓과 같았고, 모든 월트 디즈니 노래는 그날의 찬송가였습니다. 성찬은 코카콜라와 감자 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다른 일요일에 그는 건강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름은 예배에 대한 부름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불리는지 궁금해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부름은 텀블링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매트를 가져와서 교회 한가운데에 놓았고, 그들은 텀블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배에 대한 부름이었고, 텀블링 팀이 예배를 위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와 모든 문화 표현은 동등하게 유효하고, 그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 말씀드릴 한 가지는, 당신은 무엇을 얻을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 교회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은 항상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요. 누가 알겠어요?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예가 있어요.

좋아요. 그럼 그는 다른 예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그가 다른 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것이 필요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필요한 위치라고 말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왜 그것이 필요한 입장일까요? 그것은 필요한 입장인데, 그리스도를 어떤 문화와도 연관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떤 문화에든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인류의 창조자이며, 따라서 문화를 창조하는 것은 인간이므로, 그를 어떤 문화와도 연관시킬 수 없습니다. 그를 어떤 문화와도

연관시키려 한다면, 물론 그를 중동 문화권의 예수로 연관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연관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그러할 테지만, 예수가 특정 문화권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필요한 입장입니다.

니버는 또한 그것이 필요한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에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문화적으로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술라이어마허와 같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문화적으로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문화 엘리트에게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문화에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문화권에서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수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필요한 직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삶의 문화적 엘리트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술라이어마허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것이 부적절한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부적절한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부적절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의 부름이 얼마나 급진적인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부름은 두 가지 충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와 종합입니다.

복음의 부름은 결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문화는 본질적으로 죄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뉴욕, 바르트, 니버가 들려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화는 죄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는 그런 종류의 죄를 공유합니다. 문제는 그 문화권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신의 뜻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문화를 구성한 것의 죄악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한 입장이지만, 세상의 죄나 악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가 동등하게 가치가 있다고 말할 거라면, 모든 문화가, 여기에는 훌륭한 종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라면, 나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건가요? 1,100만 명의 사람들을 없애고 끔찍하게 학살한 나치 문화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건가요? 그 문화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건가요? 모든 문화가 동등하게 가치가 있다면, 모든 문화가, 그리스도와 모든 문화의 종합이 있다면, 물러나서 어떤 문화에도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할 건가요? 어쨌든, 그가 보기에 부적절한 입장입니다. 좋아요, 3번, 아니면 실제로 개요에 있는 4번이지만, 4번은 그리스도와 문화의 의도입니다.

그리스도와 문화적 의도는 중간 지점, 그가 가진 세 가지 중간 모델을 나타냅니다. 제가 한 것은 그 중간 모델을 가져와서 여기에 모두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이제 이것은 니버에 관한 한 중간 길이지만 어려운 길입니다.

중간 모델, 이제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와 문화적 의도라는 하나의 모델인 것처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중간 모델은 힘든 모델입니다. 힘든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려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문화를 어떤 식으로든 조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의 긴장을 이해해야 하고, 그리스도와 문화를 어떤 식으로든 조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즉, 그는 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님이시며, 그 중 가장 작은 것이 문화적 표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문화를 형성하는 자연 세계 때문에, 그 자연 세계는 창조 당시에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화를 형성하는 자연 세계, 그 자연 세계는 본질적으로 선합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에 의해 선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 세계.

이제, 반면에, 우리는 문화를 강요하고 형성할 때, 그 문화가 종종 사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 고든 칼리지에서도 이것을 듣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실은 신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창조에 악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실은 신의 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진실을 발견하는 곳마다, 그것은 신에게서 옵니다. 당신이 진실을 보는 곳마다.

그렇다면 과학적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신에게서 온다. 철학적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신에게서 온다. 수학적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신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종교적 진리는 신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모든 진리는 신의 진리다. 그러므로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발견하는 문화에 복종하여 봉사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니버가 말했듯이, 순종은 추상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세상을 섬기면서,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곳마다 충실하게 행하면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죄에 대한 은혜의 승리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모든 진실은 신의 진실이고, 모든 진실은 신의 진실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진실을 찾든 그것은 신에게서 온 것입니다. 과학적 진실, 수학적 진실,

철학적 진실, 예술적 진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당신은 신이 그것의 저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리스도인의 부름은 추상적인 부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문화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다른 문화에 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문화 속에서 일하게 하셨고, 그 문화 속에 진리가 있는 곳을 찾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순종이 추상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부르실 때, 그것은 추상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 세계에서 순종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나요? 그게 그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는 세인트 토마스입니다.

그래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 토마스에게서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성 토마스는 신학과 철학을 결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 토마스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보는 것처럼 현실의 구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토마스는 이런 종류의 의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토마스에 관한 한, 이 세상에서 추론하는 우리의 능력은 그것의 산물입니다. 그것은 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일하는 모든 문화권에서 그 추론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으로 스스로 해결되거나, 사회적으로 스스로 해결됩니다. 그것은 예술적으로 스스로 해결됩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에 봉사함에 따라 그것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를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문화는 신이 주신 자연 속에서 신이 주신 이성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 토마스는 그에게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했습니다.

보스턴 칼리지나 노트르담과 같은 미국의 많은 가톨릭 대학을 보면, 그들의 교육 철학은 무엇인가? 그들은 교육 철학을 어떻게 표현할까? 글쎄, 그들은 종종 이런 종류의 언어로 그것을 표현한다. 이것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다. 신은 우리가 이 기관에서 가르치는 모든 분야에서 깊이 생각할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가톨릭의 추론 방식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와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에서 그의 은혜가 어떻게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좋은 예가 있는데, 고백하자면 그가 이 예를 사용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두 번째 좋은 예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건 2세기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여기에 철자를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2세기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긴장을 정말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연히 어떤 과목에 대한 그 편지를 읽어본 사람 있나요? 정말 좋은 편지입니다. 그러니 이런 종류의 감각을 얻고 싶다면, 여기서 한 단락만 읽어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즉 중간 지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 언어 또는 관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살지 않고, 이상한 방언을 말하지 않으며,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가르침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발명과 추측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단순한 인간적 가르침을 전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와 외국 도시에 살고 있으며,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복, 음식 및 기타 삶의 측면에서 지역 관습을 따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만의 시민권의 훌륭하고 확실히 특이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국에서 살지만 외국인입니다. 시민으로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모든 것을 공유하지만 외국인처럼 모든 것을 겪습니다. 모든 외국은 그들에게 고국이고 모든 고국은 외국입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원치 않는 아기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공유 테이블을 제공하지만 공유 침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 육신 속에 있지만, 육신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나날을 보내지만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법을 따르고 자신의 삶에서 법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알려지지 않고 정죄받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그들은 모욕을 당하지만 모욕을 통해 영광을 얻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더럽혀졌지만 그들은 깨끗해집니다.

그들은 조롱을 당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은 터무니없이 대우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손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이 선을 행하면 악행자로 처벌받습니다.

벌을 받으면 마치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으로 공격하고 그리스인들에게 박해를 받지만,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의 적대감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영혼은 육체에 대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영혼은 몸의 모든 부분에 퍼져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전 세계 모든 도시에 퍼뜨립니다. 영혼은 몸 안에 있지만, 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 언젠가 구글링해 보세요. 편지 전체를 읽어보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마음을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언젠가 구글링해서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 전체를 읽어보세요. 이런 종류의 중간 지점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알았어요.

이제, 니버는 이 중간 지점에서 무엇을 할까요? 니버는 바로 여기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부적절하다고 부르지 않고 필요한 입장이라고 부릅니다. 니버와 관련하여, 당신은 그가 이 중간 지점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니버는 우리가 긴장 속에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땅의 시민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도원이라는 편안한 곳으로 달려가서는 안 되지만, 반면에 기본적으로 파산한 개신교 자유주의에 피난처를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중간 지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버에게 중간 지대는 우리의 충성이 둘 다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비판을 중간 지점에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 이번 여름에 이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독서 목록에 추가하세요. 훌륭합니다. 하지만 몇 분만이라도, 반대, 종합, 긴장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질문이 있나요? 네.

저는 그것들을 모두 여기에 넣었고, 그것들은 어느 정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제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그것들의 정확한 제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것을 보고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모두 여기에 붙여넣었고, 그것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 니버의 충성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공정하지만, 여기서는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에 대한 다른 이야기. 좋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한 마디.

수요일에는 근본주의와 복음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을 3~4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광범위한 주제이고, 그것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미국 기독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3, 신정통주의와 사회적 위기, 3부입니다.